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4호 【루계 제23166호】 주체99(2010)년 8월 2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 설

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자

다시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따라 전당적,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이 개시된 때로부터 반년 남짓한 기간이 지나갔다.

이 나날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온 나라를 격동시키는 대경사들과 불멸의 기적들이 련이어 일어났다.

지금 우리 당은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를 우리 당과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길이며 전체 인민이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길이다.》

올해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이다. 우리 당은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강성대국승리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전투적과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해서는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공동사설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공동사설과 함께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김철로동계급의 편지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은 우리 인민은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전선에서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왔다.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상반년기간에 지표별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2배이상으로 장성시켰으며 농업부문에서는 불리한 기후조건과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농업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져나오고 희천발전소,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놀라운 속도가 창조되고있다. 능력확장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같은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되는 위대한 기적이 창조되였으며 문화분야에서도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고있다.

올해에 들어와 제국주의반동들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나 적들의 발악적인 책동도, 그 어떤 난관도 인민생활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진군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정책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그 어떤 난관속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해나갈 때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울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앞에는 이룩한 성과와 투쟁경험에 토대하여 올해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미 거둔 성과에 기초하여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내밀어야 올해가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의 해로 될수 있으며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이 제정된 시간표대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 우리는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정책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

력사적인 당대표자회가 다가오고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열정과 투쟁기세는 더 높이 분출되고있다. 력사적으로 우리 당대표자회가 열린 해들은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난 전환적계기들이였다.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당대표자회가 있었던 1958년에 나라의 공업총생산액은 전해에 비하여 140%로 장성하고 혹심한 가물속에서도 알곡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으며 문화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였다. 우리 인민은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지난 시기와 같이 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당대표자회를 빛내이려는것이 우리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을 무조건 빛나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공동사설은 당의 방침이며 여기에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책임적으로 조직지도하여야 할 임무는 다름아닌 당조직들에 지워져있다.

당조직들은 지난 반년 남짓한 기간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거둔 성과와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특히 일군들과 당원들의 당조직사상생활을 공동사설과업관철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모든 투쟁과 생활이 공동사설의 정신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과정으로 되게 하고 그들의 결의가 실천에 옮겨지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들끓는 현실속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패기있게 벌려 온 사회에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혁명적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도록 하며 누구나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서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과 농업에 힘을 집중하여 올해에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는것은 공동사설이 제시한 기본과업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자기 부문, 자기 단위가 맡고있는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맡겨진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정상화를 계속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자강도에서와 같이 경공업공장들을 최신기술로 장비하고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작물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하고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 뜻깊은 올해에 오곡백과 주렁진 풍요한 가을을 안아와야 한다. 금속, 전력,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높은 생산적앙양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를 힘있게 떠밀어나가야 한다. 희천발전소건설, 흥남가스화대상공사, 평양시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오늘의 대고조는 선군대고조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구현하여 인민군대의 전반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며 적들의 그 어떤 불의적인 도발책동도 단호히 짓부셔버릴수 있게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여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희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장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한다.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군민일치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공동사설과업관철에서 자랑찬 성과와 승리를 이룩하자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헌신의 세계에 자신들을 따라세워야 한다.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려는 원대한 리상과 포부, 조국과 후손만대의 휘황한 래일을 위한 고결한 인생관, 앞날의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전변시켜나가는 무한한 헌신성, 이것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끊임없는 강행군장정에 맥박치는 지향이고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고조격전장들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8 000여리의 외국방문길을 마치신 그길로 또다시 강행군현지지도길을 이어가신 희세의 령도자의 거룩한 모습에서 열화같은 애국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고있다. 오늘의 대고조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강의한 애국의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추동되는 성스러운 진군이다.

우리앞에는 애로와 난관이 적지 않지만 위대한 장군님의 리상과 각오, 공격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면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란 없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희천발전소 군인건설자들과 김철, 성강, 남흥과 대계도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대고조사상과 강행군정신으로 맡겨진 전투과제를 무조건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구호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 대고조의 기수답게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조건과 가능성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사업을 능동적으로, 참신하게 전개해나가며 로력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경제사업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후방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공동사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강성대국에로 솟구쳐오르는 **김일성**조선의 단결의 위력, 강성번영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다.

모두다 공동사설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밀고나감으로써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대고조의 승리를 위하여 총진군 앞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와 압록강수산사업소에서 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7월 26일과 30일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와 압록강수산사업소에서 진행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궐기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계도간석지를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주신 특별감사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전달되였다.

김평해 도당위원회 책임비서의 보고에 이어 련합기업소 지배인 최영덕, 다사간석지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 김철호, 곽산간석지건설사업소 지배인 리영인, 청강기계화사업소 직장장 한광렬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날바다우에 거창하게 일떠선 대계도간석지를 돌아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서해갑문에 못지 않는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낸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특별감사를 받아안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데 대하여 언급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속에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가 **김일성**훈장을, 대계도간석지설계도가 **김일성**상을 수여받았다고 감격에 넘쳐 말하였다.

대계도간석지의 완공은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선군조선의 기적을 창조한 기세드높이 간석지건설에서 대고조의 불길을 계속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간석지개간사업을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해안방조제와 배수구조물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하고 해일피해로부터 방조제를 보호하며 새땅을 더 많이 얻어내여 나라의 식량문제해결에 이바지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우리 식의 독특한 건설공법을 창안도입하며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건설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부강조국건설위업수행에 적극 기여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압록강수산사업소 궐기모임에서는 지배인 기재선의 보고에 이어 기사장 명윤성, 부원 김인남, 작업반장 방춘영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새로 꾸린 축양장과 굴양식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영양가높은 물고기를 많이 기르고있는데 대해 평가하시면서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은 물고기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데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에게 맛좋은 수산물을 더 많이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증산투쟁에 적극 떨쳐나설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축양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종업원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더욱 높일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종자배양장을 빠른 시일안에 건설하여 각종 수산물의 종자를 종합적으로 배양하도록 하며 생산의 다량화와 운영의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자연먹이에 의한 굴양식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사양관리를 부단히 개선하며 양식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맛있고 영양가높은 수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모임들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7월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7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드높이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에서는 7월에 석탄생산을 6월에 비하여 1.2배로 높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입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에서는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일군들과 탄부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받들고 생산공정의 과학화, 현대화를 다그쳐 석탄생산을 계속 늘이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화풍, 립석, 룡림탄광에서 전망이 좋은 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상반년기간에 석탄생산전망을 열기 위하여 내세웠던 전투목표들을 성과적으로 돌파한 이 탄광들에서는 지금 석탄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특히 립석탄광에서는 장벽식채탄구역을 확장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화풍, 룡림탄광에서는 전망이 큰 채탄장들을 마련하기 위한데 힘을 넣으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석탄생산에서는 당대표자회전으로 년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연풍, 신리, 칠리탄광의 탄부들이 앞서나가고있다.

연풍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높이 세운 7월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이 없이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7월 석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신리, 칠리탄광의 탄부들이 드세찬 공격전을 들이대면서 련일 놀라운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청남, 립석탄광의 탄부들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비바람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평안북도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평안북도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도안의 해안방조제들을 돌아보고 서석해안방조제를 보다 튼튼히 보강할수 있게 로력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어 공사를 전투적으로 내밀도록 하고있다.

신의주시, 룡천군, 정주시, 운전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의 책임일군들도 해안방조제들과 강하천들을 돌아보고 공사대상들을 확정한데 이어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위험개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있다. 신의주시에서는 상단, 하단, 류초제방보강공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운전군, 박천군들에서는 청천강, 대령강제방보강사업에 힘을 넣고있으며 태천군에서는 천방강제방을 보강하면서 물이 넘어나거나 제방이 터져나가지 않게 하고있다.

녕변군, 선천군, 피현군들에서는 산사태가 날수 있는 위험개소들에 사방야계공사들을 진행하고있으며 도로와 다리를 보강하기 위한 전투도 힘있게 벌리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무더기비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웠으며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는 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웠다.

도안의 농업부문에서도 큰물과 비바람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황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황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높이 세운 알곡생산계획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하여 큰물과 비바람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큰물과 비바람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군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강하천정리와 물길보수, 논뚝보강을 비롯한 과제를 정확히 주어 피해막이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도록 하고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농업부문 일군들은 농업근로자들이 큰물과 비바람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이 사업을 진행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군의 책임일군들이 협동농장들에 자주 내려가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큰물피해막이전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시켜주면서 전투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주인된 자각을 안고 큰물과 비바람피해막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룡천, 구포, 철도, 신상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물길들을 깨끗이 정리하여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하고있으며 외상협동농장에서는 모든 강냉이밭들에 새끼줄을 쳐주고 후치질을 깊이해서 밭이랑의 높이를 보장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농작물들을 그 어떤 큰물과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보호할수 있는 대책들이 철저히 세워지고있다.

특파기자 김천일

혁신의 불바람 일으키는 화선식경제선동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도예술선전대들의 집중경제선동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지고있다. 현재 락랑—력포지구와 시내 중심지구, 하당—서포지구에서는 평양시예술선전대와 자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예술선전대들이 집중경제선동을 힘차게 벌려 전투장마다를 들끓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선전선동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화성과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전국의 여러 도예술선전대들로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들에서 집중경제선동을 경연의 방법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평양시와 여러 도의 예술선전대들이 락랑—력포지구와 시내 중심지구, 하당—서포지구 건설장들에서 일제히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울렸다.

락랑—력포지구 건설장에 달려나간 평양시와 황해남도, 황해북도예술선전대원들은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드높은 혁명적각오를 안고 건설현장에 뛰여들어 맹렬한 경제선동활동을 벌리고있다.

평양시예술선전대원들은 수도건설에 필요한 강재생산전투에 떨쳐나선 로동계급을 고무하기 위해 평양강철공장에 달려나가 경제선동활동을 진공적으로 벌린데 이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 달려나갔다.

항일유격대식으로 들끓는 전투현장들을 찾아가 우리 당의 수도건설구상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고 격동적인 방송선동과 예술선동을 열정적으로 벌려가는 그들의 모습에 고무된 로동계급은 수도건설에서 제기되는 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시내 중심지구에서 활동하고있는 자강도, 평안북도예술선전대원들은 하루 4회이상의 경제선동을 벌리면서 건설자들을 위훈에로 고무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수도건설구상을 하루빨리 꽃피울 일념안고 붉은 천에 《수도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시대 평양번영기를 펼치자!》라는 구호를 새겨가지고 달려온 자강도예술선전대원들은 수도에 도착한 즉시 건설장입구에 그것을 설치하고 경제선동에 진입하였다.

하당—서포지구 건설장에 나간 평안남도예술선전대원들은 수도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고무하기 위하여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달려갔다.

예술선전대원들은 경제선동을 드세차게 벌려 4일동안에 해야 할 로보수를 단 하루동안에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본사기자 정영화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강철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신 우리 당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50년전 그날과 더불어 빛나는 승리의 8월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로 백승을 떨쳐가는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그 의미가 더욱 강렬해지는 8월이다.

주체34 (1945) 년 8월 15일!

주체49 (1960) 년 8월 25일!

얼마나 뜻깊은 날들인가.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인민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참된 삶을 안겨주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수령님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를 떠나 결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위용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돌이켜보면 달리는 표현할수 없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8월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선군혁명령도의 업적과 경험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실시하는 선군정치의 기초에 놓여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와 온갖 반혁명세력과의 힘의 대결을 동반하는것만큼 군사는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선다. 자체의 강력한 혁명무력을 가져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총대우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번영도 있다!

이것은 조국해방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주체의 혁명원리인 동시에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기초로, 출발점으로 하는 탁월한 선군정치로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빛내여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의하여 확증된 혁명의 법칙이기에 더욱 뜨거운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주체49 (1960) 년 8월 25일이다.

어느덧 50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고 승리떨쳐오신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하실 철석의 의지를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새기신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부대군인회관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군인회관의 정문채양우에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라는 구호가 나붙어있었다.

이윽토록 구호를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저으기 감동어린 어조로 이 구호는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을 그대로 담은 아주 좋은 구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업적을 영원히 빛내여가시려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의지가 빛발치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인들과 담화하실 장소를 돌아보실 때에도 우리 군인들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받드는것을 첫째가는 의무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구호를 하나 써붙여도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구호를 써붙여야 한다. 구호 하나만 보아도 부대안의 정치사업이 잘되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땅크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목숨으로 사수할 사상적각오를 굳게 가져야 한다. …

쏟아지는 한여름의 불볕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부대를 찾으시여 우리 군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끝까지 따르도록 가슴마다에 억척같은 신념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날의 현지시찰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한 력사적장거였다.

그때로부터 인민군대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선군사상과 령도가 더욱 철저히 구현되게 되였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사람들이여, 부디 잊지 마시라.

오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이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위용을 높이 떨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가는 경이적인 현실이 다름아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력사의 그날과 잇닿아있음을.

잊지 못할 그날로부터 시작된 장장 50성상을 헤아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그대로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자랑찬 로정이며 강력한 군사적담보밑에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새 력사를 펼치신 승리와 영광의 빛나는 년대기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던 지난 세기 60년대에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며 선군혁명의 개척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선군정치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대앞에 《**일당백**》의 구호를 제시하시였을 때 군인들을 일당백으로 키울데 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는 군인들이 방어전투와 공격전투에서 하나가 백을 담당할수 있는 펄펄 나는 싸움군이 되라는 높은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동무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기 무기에 정통하며 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적을 족치는 전법에 숙련된다면 일당백은 문제없다고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미제가 《푸에블로》호사건을 계기로 그 무슨 《보복》에 대하여 떠벌이였을 때에도 그이께서는 인민군대의 존엄의 상징인 자위의 군사사상을 불멸의 기치로 더욱 높이 추켜들고 나가도록 하시였다.

자위의 사상은 이 땅우에 계급적원쑤가 있고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 인민군대가 항구적으로 추켜들고나가야 할 영광의 기치이고 필승불패의 무기이다.

어찌 그때뿐이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실현이 전면에 나섰던 1970년대에도 전군주체사상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춘 필승불패의 혁명무력으로, 선군사상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강위력한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끝없는 심혈을 바치시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나는 수령님께서 동지를 규합하고 무장대오를 결성하시는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신것처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도 인민군대를 믿고 하려고 한다, 나는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앞장서리라고 믿는다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메아리쳐 울려오는듯싶다.

희세의 선군령장으로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령도적수완과 특출한 정치군사적실력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를 펼치시여 생사기로에 놓였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과 강성대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데서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정치군사적안목으로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선군혁명위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참으로 전무후무한것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와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오늘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대한 우리의 긍지가 드높은것도 바로 그때문이 아니랴.

지난해 4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인 태양절을 맞으며 터져오른 축포야회의 불보라는 정녕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위용을 누리에 떨치신 절세의 위인들께 드리는 영광의 축포였으며 강의한 정신력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대국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억센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승리의 축포였다.

여기에 유럽의 한 력사학자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격찬하며 심장으로 터친 토로가 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는 그 어느 사회주의정치사에도 있어본적이 없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문자그대로 전무후무한것이다. …

진정 **김정일**식정치, 선군정치야말로 사회주의백전백승의 보검이고 사회주의존립의 생명선이며 21세기의 사회주의정치, 자주정치의 표본이라고 나는 주저없이 말하고싶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혁명령도는 백전백승의 보검이다.

이제 세계는 다시금 보게 될것이다.

인류가 공인하는 희세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밑에 이룩될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승리와 더불어 내 나라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터져오를 환희의 불보라를.

본사기자 리금분

위력한 정치방식, 만능의 보검

수십성상에 걸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성스러운 자욱으로 수놓아져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민족만대번영의 길을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은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계승하고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켜 내놓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혁명의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조국번영의 길이 있다!

이것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지난 10여년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준엄하고도 시련에 찬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쳐오며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이다.

주체85 (1996) 년 12월 어느날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현실발전에 맞게 더욱 계승발전시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해나가시려는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지금 우리는 적들과의 치렬한 대결상태에서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고있다. 적들과의 대결은 첨예한 사상적대결이며 힘의 대결이다. 우리는 오직 당을 강화하고 인민군대를 강화하여야 적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있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

조국앞에 그처럼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준엄한 시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여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실 철의 의지를 지니시고 불면불휴의 선군장정을 이어가시였다.

조국의 방선을 지켜선 병사들을 찾아 끊임없는 전선길을 걷고걸으시며 찾으시는 초소와 고지마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우리 병사들의 사업과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파도치는 바다가의 외진 섬초소와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는 최전연부대를 찾으시여서도, 혁명적군인정신이 나래치는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가 당의 선군정치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령도에 의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이 비상히 강화되고 나라의 자립경제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였으며 그 누구도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릴수 없게 하는 강력한 자위적국방력이 마련되였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무적의 총대에 의하여 담보되는 우리의 대고조진군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혁명의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조국번영의 길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다시금 뚜렷이 새겨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혁명의 총대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본사기자 김용진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에서— 김진명 찍음

선군혁명령도의 나날에

총대에 새기신 고귀한 진리

주체84 (1995) 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인민군지휘성원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총에 대한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는 총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사랑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내가 11살 되던 때 벌써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다, 그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왜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는가 하는것을 미처 다 몰랐다, 나는 곡절많은 혁명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령님께서 왜 어린 나에게 권총을 주시였으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가슴깊이 느끼게 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언제나 총과 숨결을 같이하고있다고, 이 세상 모든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라고 말할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총에 대한 나의 지론이고 총관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

세상에 군대와 총이 생겨 장구한 세월이 흘렀고 많은 장군, 명장들이 총과 함께 한생을 바쳤지만 아직 그 누구도 총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를 내리지 못했고 총관이란 개념조차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항일의 총성을 자장가로 들으며 성장하신 빨찌산의 아들, 총과 함께 혁명의 먼길을 걸어오시며 총의 귀중함을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을수 있는 총에 대한 지론이고 총관이다.

확고한 신념, 드팀없는 의지

고난의 행군시기의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믿고 앞장에 내세워 혁명의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실 철석의 의지에 대하여 표명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내가 왜 인민군대를 중시하는지 그 리치를 알아야 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시고 로동계급을 불러일으켜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시였다고,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다고, 지금은 인민군대에서 자력갱생의 본보기도 나오고 혁명의 법칙도 나오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가 강해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끄떡없이 지켜낼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총대중시의 심오한 사상이 빛발치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일군들의 가슴을 세차게 파고들었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의 기둥인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문제는 혁명의 성패와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이라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군대를 더욱 강화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총대철학으로부터 출발하여 선군후로의 원칙을 정립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렇듯 숭고한 뜻이 있어 우리의 총대는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필승의 보검이 되여 사회주의 내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것이다.

로현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전당이 조직사상적순결체를 이룬 필승불패의 당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승승장구하여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에서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63 (1974) 년 8월 2일에 발표된 이 로작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사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문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며 당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집대성되여있는 불멸의 대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당의 사상적일색화는 혁명적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수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된 당은 백전백승의 위력을 떨치게 된다.

오늘 우리 당은 **김일성**민족의 위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며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지난해의 150일전투와 100일전투에 이어 올해의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세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주체사상승리의 대경사들과 불멸의 기적들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는 우리 당의 비상한 전투력과 령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의 백승의 위력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력,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의 위력이다. 우리 당의 최고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당사업의 총적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선결조건, 기본열쇠로서 전당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하여 뚜렷이 밝힌 여기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이 가지는 력사적의의가 있다.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시작된 당의 주체사상화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시며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우리 당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세기를 이어 굳건히 옹호고수하며 빛내여나가는 사상적순결체로, 전당이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루고 수령님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불패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소집될 력사적인 그날을 기다리며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 당의 전투적위력과 혁명적면모를 통하여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결사옹위해나가는 불패의 전위대오이다.

혁명적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는 정치조직인것만큼 당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자면 수령결사옹위의 전위대가 되여야 한다. 당대렬을 수령의 사상과 권위, 업적을 절대화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혁명대오로 강화하여야 어떤 풍파와 시련속에서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전당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는것, 바로 여기에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 사상적일색화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더욱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우리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투철한 한별옹위정신, 혁명의 사령부수호정신을 수령결사옹위정신의 본보기로 내세우시고 모든 당조직들이 항일혁명선렬들의 사상정신과 투쟁전통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여 당대렬의 사상적일색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우도록 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대오를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튼튼히 꾸리시였다.

오늘 우리 당대오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며 혁명의 수뇌부와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숭고한 정신세계가 꽉 차넘치고있다. 순간을 살아도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위하여 살고 장군님을 옹위하는 길에서 삶을 빛내이려는 각오로 심장을 끓이고있는 선군혁명동지들의 정예대오가 바로 우리 당조직들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수령결사옹위의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끝없이 빛내여나가고있는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영웅적대고조진군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된 강철의 전투대오이다.

혁명적당의 공고성과 생명력은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에 의하여 보장되며 그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우리 당이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움직이는 전일적인 혁명대오로 될수 있으며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수령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건설위업을 이끌어오시는 전기간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힘을 기울여오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을 당사상사업의 기본임무로 내세우시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의 자욱은 우리 당력사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는 구호에는 전당, 전군, 전민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그대로 어려있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꽉 차넘치고 모든 당원들이 수령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전위대오, 이것이 우리 당의 전투적면모이다.

우리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룬 조직사상적순결체이다.

당대렬의 통일단결은 혁명하는 당의 힘의 원천이다.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사상적기초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이 오늘처럼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은것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하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당건설위업을 이끄시는 전기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도덕의리적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일심단결을 우리 당의 정치철학으로,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당의 통일단결을 굳건히 담보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당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를 비롯한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당대렬의 조직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조선로동당이 그처럼 위력하고 강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최상의 높이에 이르고있다.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거창한 진군속에서 전체 당원들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령도자와 운명공동체를 이룬 불패의 대오가 바로 우리 당이다. 령도자의 두리에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신념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는 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리론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리강철

위대성교양을 실속있게

피현군 하단리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들끓는 작업현장에 달려나가 독보와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을 통하여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과 정당성, 불패의 생활력을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고있다.

얼마전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작업의 쉴참에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생동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감명깊게 해설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며 당면한 영농작업에서 련일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원화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자

실력이 있어야 도와줄수 있다

사리원시당위원회 조직부 사업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63(1974)년 8월 2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우리 당일군들, 특히 당조직일군들이 지침으로 삼아야 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과정에 사리원시당위원회 조직부 일군들의 하부지도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이들 모두가 정치리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준비된 유능한 당일군으로 성장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일군들의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되고 사업실적으로 표현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사리원시당 책임일군인 장봉남동무는 조직부지도원과 함께 담당단위들을 돌아보았다.

사업을 갓 시작한 지도원이였지만 공장, 기업소들의 실태와 로동자들의 생활형편, 그들의 기술기능에 이르기까지 손금보듯 환히 꿰들고있었다. 뿐만아니라 그 단위들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대책에 이르기까지 일가견을 세워가며 책임일군에게 조리있게 설명해주었다.

책임일군에게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우수한 실력으로 대학을 졸업한 젊은 일군이 더없이 대견스러웠다.

그런데 공장, 기업소단위를 벗어나 학교와 병원을 비롯한 교육보건단위를 찾았을 때 그 지도원의 말문이 자주 막히군 하였다.

생각되는바가 있어 책임일군은 조직부 책임지도원, 지도원들의 실태를 알아보았다.

사정은 다른 일군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일군들의 실력과 담당단위의 사업실적을 결부하여 분석해보니 원인은 명백해졌다. 그것은 일군들이 대학에서 전공한 부문들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 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의 실효가 높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단위들에 대한 지도사업이 상대적으로 심화되지 못하고있는것이였다.

그날 책임일군은 조직부일군들이 담당단위의 사업을 책임지고 도와주는 립장에서 애를 많이 쓰지만 응당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그들의 실력이 낮은데 있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였다.

하부지도의 목적은 아래단위의 실태를 깊이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 단위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하자는데 있다.

그러자면 조직부일군들이 실력가형의 일군들로 준비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당일군들이 자기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다하자면 실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당일군들은 당사업실무와 함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적인 지식도 겸비해야 당사업의 기본인 사람과의 사업을 잘할수 있으며 그 어느 단위를 맡겨주어도 당의 의도에 맞게 능숙하게 일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실력은 곧 창조적능력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시당위원회 조직부에서는 하부지도사업을 개선하는 기본열쇠를 일군들의 실력문제에서 찾았다.

부서에서는 우선 지도원들의 실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재무장기간 학습계획부터 면밀히 세웠다. 이에 기초하여 백두산3대장군의 로작 학습을 더욱 심화시키고 문답식학습경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일군들의 정치리론수준을 한계단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도원들이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특히 담당단위의 과학기술문제에 정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아래단위의 일군들, 기술자들과 허심하게 마주앉아 배운 내용을 산지식으로 만들게 하였고 사업실천에 적극 구현해나가게 하였다.

조직부지도원들의 실력을 높이는데서 하부지도사업경험토론회는 매우 효과적이였다.

같은 조직부일군이라고 하여도 사업년한과 지식정도, 경험등에 따라 실무수준이 같을수는 없는것이다.

부서에서는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로숙한 오랜 지도원들의 하부지도경험을 신임지도원들이 따라배우게 하는 동시에 갓 들어온 지도원이라도 하부지도에서 특이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에는 모두가 본받게 하기 위한 사업을 의도적으로 짜고들었다.

실례로 조직부일군인 윤석철동무의 하부지도사업경험을 놓고볼 때 높은 조직력, 전개력과 함께 그의 장점은 담화술이 매우 높은것이였다.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할 때 담화는 그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들을 옳게 이끌어주자면 담화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의 능란하면서도 세련된 담화방법과 묘술은 조직부지도원들의 하부지도사업에 큰 도움을 준 귀중한 경험으로 되였다.

조직부일군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부단히 진행되는 속에 하부지도사업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조직부책임지도원 리국진동무는 사리원과수농장을 담당한 첫 시기까지만 하여도 과수업에 대한 기술적파악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과학기술학습에 품을 넣으면서 담당분야에 대한 지식을 부단히 습득해나가는 과정에 그의 하부지도사업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과수농장에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를 제때에 포착하고 생산정상화를 위한 대책적문제에서 일가견을 명백히 세우고 그 단위에 대한 지도사업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단위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게 한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김영춘, 김경호, 리성철동무들을 비롯한 부서안의 많은 일군들도 높은 실력으로 담당단위사업에 대한 하부지도를 알속있게 해나감으로써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란하게 풀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최근 시안의 많은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좋은 성과들이 련이어 이룩되게 하고있다.

그렇다. 실력이 있는것만큼 도와줄수 있다.

실력문제를 중시하고 여기에 큰 힘을 넣어 하부지도사업에서 성과를 올림으로써 력사적인 로작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해나가고있는 사리원시당위원회 조직부 일군들의 사업은 매우 경험적이다.

본사기자 황철웅

어느 고리를 중시했는가

조양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 당력사에 특기할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조양탄광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탄부들이 석탄생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사업에 대한 당조직들의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입니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지도이다.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힘을 넣은 고리의 하나는 대중의 정신력발동을 위한 계기와 공간들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그를 통한 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진행한것이다.

이곳 탄광에서는 월초마다 석탄생산경기총화모임과 체육경기를 동시에 진행하고있다.

이 사업은 대중의 경쟁열의를 한껏 돋구어주는데서 그 실효가 대단하였다. 한것은 초급당위원회가 생산경기와 체육경기요강을 탄부들속에서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고 생산의욕과 승벽심을 불러일으킬수 있게 잘 만들고 경기조직과 운영, 총화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기때문이다.

7월초에 진행한 생산경기총화모임과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생산경기순위를 발표한 다음 방송원이 류창한 목소리로 우승한 단위와 혁신자들을 한사람씩 내세우면서 소개하자 탄부들과 가족들이 그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혁신자들을 목말에 태우고 뜨겁게 축하해주었다. 우승의 영예를 지닌 혁신자들을 바라보며 갱일군들과 탄부들은 다음번경기에서는 자기단위가 꼭 우승하겠다는 경쟁심으로 가슴을 끓이였다. 이렇게 총화모임을 의의깊게 진행하니 다음번생산경기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되였다.

경쟁바람을 일으키는데서 다른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그것은 생산경기에서 우수한 갱과 중대, 소대들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함으로써 경쟁에서 앞선 단위에 한번 도전하겠다는 경쟁심이 일게 하고있는것이다.

초급당위원회는 생산경기총화를 진행한 다음에는 반드시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우수한 단위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뒤떨어진 단위는 집중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는데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히 중시한것이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봉갱 채탄1중대에 들어간 초급당비서 윤재범동무는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혁신자들을 빠짐없이 만나 축하도 해주고 앞선 단위들의 경험도 들려주었다. 탄부들과 마주앉은 초급당일군은 이번에 소집되는 당대표자회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면서 당면한 석탄생산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탄부들이 분발해나섰다. 대중의 앙양된 분위기에 맞게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탄광일군들이 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소공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초급당위원회는 탄광일군들과 직맹일군들로 하여금 경쟁조직과 평가, 총화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이끌었다. 월봉갱, 청년갱을 비롯한 탄광안의 모든 갱들에서 승벽내기로 석탄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실천적경험은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정치적지도로 일관시키고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행정경제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줄 때 높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최일호

당세포강화에 큰 힘을

함흥제분공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당원들의 당생활조직과 지도에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직접 들어가 당세포비서들을 도와주고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는것이다.

함흥제분공장 초급당위원회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위원회들은 하부지도사업에서 당일군들이 당세포에 직접 들어가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면서 세포비서들을 적극 도와주고 배워줄데 대한 당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몇해전 당의 신임에 의하여 공장초급당비서로 배치되여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가 실태를 료해하던 변창덕동무는 당세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다음날부터 초급당비서는 그 작업반에 나가 살다싶이 하였다. 우선 당세포비서의 실무수준을 높여주기 위한데 큰 품을 넣었다. 당세포비서에게 당보와 당사업과 관련한 잡지들에서 경험적인 자료들을 발취하여 주기도 하고 당원들과 담화하는 방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당사업방법을 배워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원들이 작업반원들을 담당하여 교양하고 이끌어주도록 분공조직도 짜고들었다.

그 과정에 당원들의 선봉적역할, 교양자적역할이 강화되여 작업반의 모든 일이 잘되여나가게 되였다.

초급일군들과 당원들은 분발하여 불과 몇달동안에 자체의 힘으로 작업장과 교양실, 휴계실을 훌륭히 꾸려놓았으며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짱짱 생산하는 기적을 창조하게 되였다.

얼마후 그곳 당세포는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들어서는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제일 뒤떨어졌던 작업반이 제일 앞선 단위로, 충성의 당세포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놀라운 현실은 다른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당원들의 승벽심을 불러일으켰다.

공장의 모든 당세포들이 충성의 당세포로 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는 속에 공장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당조직의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당세포사업에 품을 넣은것만큼 당조직의 전투력이 강화된다는것을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다시금 강조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마음의 문을 여는 진정

장연군 눌산리당위원회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은 사업에서나 사람들을 대하는데서 겉만 보지 말고 안속을 볼줄 알아야 하며 매사를 심사숙고하고 로숙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숭고한 동지관을 지니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할수록 우리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지고 혁명과업수행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지난 10여년동안을 장연군 눌산리당비서로 사업해오고있는 백철봉동무가 체험한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당일군들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제1작업반 2분조에 내려갔던 리당비서동무는 농장원들속에서 김동무에 대한 좋지 못한 말들이 오가고있는것을 알게 되였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리당일군은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되여있다고 보았다.

농장원 한사람한사람을 혁명동지로 보는 관점에 서있을 때 사람들에게 진심을 쏟아부을수 있으며 바로 그 진심이야말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통행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돌이켜본 리당일군은 그를 만나기 전에 그와 오래동안 일해온 농장원들을 만나보았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김동무는 책임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였다. 그런데 생활하는 과정에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제기되자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다른 농장으로 가려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되였던것이다. 이것이 그의 진짜 속마음이 아닐것이라고 단정한 리당비서는 어느날 김동무네 집을 찾았다. 그날 리당일군은 그의 가정생활형편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그를 고무해주는 좋은 말을 많이 하였다. 리당일군은 그에게 사람은 기계가 아닌 이상 일을 하다가 본의아니게 실수할수도 있다, 그렇다고 주눅이 들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집단과 동지들의 방조를 받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었다.

리당일군의 진정에 넘친 따뜻한 목소리는 얼음처럼 굳어졌던 그의 마음을 점차 녹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그는 사소한 일로 집단의 분위기를 흐려놓은적도 있었다고 그 누구에게 말한적이 없었던 자기의 속마음까지 드러내놓았다. 당일군의 진정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던것이다.

그의 사업과 생활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후 당조직의 믿음에 의하여 제1작업반 2분조장이 된 그는 랭습지를 옥답으로 만들 높은 목표를 세우고 논벌에서 살다싶이 하며 일자리를 푹푹 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가 집근심을 하지 않고 맡은 일에 전념할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일군들이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부뚜막과 울타리를 손질해주고 땔감도 마련해주었다. 일군들의 진심은 그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그는 분조원들을 발동하여 2정보의 논을 옥답으로 만들고 알곡소출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나날에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되였다. 그후 작업반장이 된 그는 올해모내기를 제일먼저 끝낸것을 비롯하여 모든 영농공정을 앞당겨 수행함으로써 농장에서 없어서는 안될 혁신자로 이름을 떨치게 되였다.

타고난 훌륭한 사람이란 없다. 우리 일군들이 대중의 마음의 문을 열줄 알 때 누구나 혁신자로 키울수 있다. 이것이 리당위원회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에서 찾은 교훈이다.

본사기자 손영희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로작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학습하고있다.
—만경대구역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장청일 찍음

평양산원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평양산원창립 30돐 기념보고회가 7월 3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강능수내각부총리, 최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최창식보건상,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평양산원과 평양시내 의료일군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평양산원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당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창립 30돐을 맞는 평양산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구상을 받들어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산원을 세워주시고 주체69(1980)년 7월 30일 평양산원의 개원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시였으며 현대적인 의료설비와 기구들, 효능높은 보약제와 영양식료품들을 보내주시면서 산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해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평양산원은 창립후 지난 30년동안 당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 굴지의 녀성종합병원, 믿음직한 의학과학연구기지로 강화발전되여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축하문은 이곳 의료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발휘하여 네쌍둥이, 세쌍둥이를 비롯한 수많은 새 생명을 받아 건강하게 키워내고 녀성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내외에 과시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곳 의료일군들은 전국의 여러 단위들에 나가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국가의 인민적보건시책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적극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고 축하문은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의료봉사활동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원장 김성희의 보고에 이어 부원장 박성숙, 실장 김환성, 과장 박영호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일찌기 주체적인 보건사상을 창시하시여 사회주의의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현대적인 산원을 건설할데 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으며 주체69(1980)년 3월 31일 새로 건설된 평양산원을 몸소 찾아주시고 의료봉사와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구상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평양산원건설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온 세상에 그 창립을 선포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산원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신식의료설비들과 보약제 등을 끊임없이 보내주시며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고 의료봉사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평양산원의 의료일군들이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지난 30년간 녀성들과 갓난애기들에 대한 치료예방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평양산원은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으며 의료일군들속에서 로력영웅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수훈자들이 배출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의 보건정책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의료봉사와 과학연구, 관리운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산원에 깃들어있는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든 의료일군들이 최첨단을 돌파할 열의밑에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선진적인 진단치료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치료예방사업의 전문화수준과 의료봉사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은정어린 의료설비들을 잘 운영하고 의료봉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철강재생산을 함께 책임진 심정으로

황해북도고금속사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강재생산을 늘이자면 파철모으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제철, 제강소들에 파철을 많이 보내주어야 합니다.》

황해북도고금속사업소는 매월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는 단위이다. 철강재생산의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여 소문없이 일을 잘하는 이 단위의 사업성과는 그대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도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의 높은 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사실 파철원천을 찾아내고 그것을 수집하여 실어들이고 선별과 가공 그리고 이적하였다가 화차에 실어 떠나보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높은 정신력을 발휘하여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가고있다.

언제인가 도안의 금속공장들에 파철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도당위원회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따라 도안의 인민들이 파철모으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결과 이곳 사업소로는 매일 많은 량의 파철이 들어오게 되였다. 기중기의 능력이 제한되여있는데다가 많은 파철을 선별하여 기중기가까이로 옮겨놓자니 로력이 긴장하였다.

그러나 지배인 최유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기로 결심하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기중기운전공 최명덕동무는 기중기바가지의 용량을 더 늘이기 위한 기술혁신안을 내놓았고 작업반장 리일남동무는 작업반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파철선별과 화차에 싣는 시간을 더 줄일것을 결의해나섰다. 권영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 사업을 끝내면 곧장 작업장으로 달려나갔고 손복남, 강석진, 강인국동무들을 비롯한 로동자들은 자기 맡은 일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를 찾으시고 그곳 로동계급이 이룩한 성과를 두고 만족해하시였다는 소식을 전해듣던 날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파철을 황철에 보내줄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그러한 마음을 안고 이들은 륜전기재에 필요되는 부속들을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공무동력기지를 훌륭히 꾸리였고 기중기와 절단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화차머무름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게 하였다.

이곳 사업소에서는 유휴자재를 가지고 여러가지 건설자재들을 생산하여 례성강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특파기자

계급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안변군 모풍리당위원회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공화국모략책동이 극도에 이른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특히 리당위원회에서는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의 죄행과 만행자료들을 가지고 계급교양사업을 정상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분노로 가슴끓이게 하고있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계급교양사업을 통하여 리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불타는 마음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강경희

농촌풍경을 돋구어주는 줄당콩숲

단천시 양평협동농장

단천시 양평협동농장에 가면 살림집주변에는 물론 길옆에도 줄당콩숲이 펼쳐져 사회주의농촌풍경을 한껏 돋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촌살림집주변에 줄당콩을 많이 심으면 그것도 하나의 농촌풍경으로 될것입니다.》

농장소재지에서 리원군방향으로 뻗은 도로에 들어서면 서늘한 그늘을 지워주는 줄당콩숲이 눈길을 끈다. 높이 세운 당콩대에 촘촘히 늘인 줄을 휘감아오르며 푸르싱싱 자라는 줄당콩숲은 보기만 해도 흐뭇하다. 이채로운 모습을 펼친 줄당콩숲은 이 도로에만 펼쳐진것이 아니다. 농장소재지에서 작업반으로 뻗어나간 포전도로들에 펼쳐진 줄당콩숲은 더욱 볼만 하다. 그 연장길이는 수천m나 된다. 농촌살림집들주변에 또한 줄당콩숲이 펼쳐졌다.

농근맹초급일군인 윤승일동무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심은 줄당콩이 수만포기나 된다고 한다.

지난 기간 농장일군들은 농촌에서 줄당콩을 많이 심을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해마다 모든 세대들에서 줄당콩을 많이 심도록 하였다. 렴성학, 최춘호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농근맹조직이 줄당콩을 심고 가꾸는데서 앞장서도록 이끌어주었다. 기술일군들은 올종과 중간종, 늦종을 잘 배합하여 심고 유기질비료를 구색이 맞게 주는 문제 등 기술적문제들도 알려주어 줄당콩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착실히 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농장일군들은 살림집주변만 아니라 도로옆에도 줄당콩을 심으면 더 많은 줄당콩을 생산하여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내주고 농장원들의 식생활도 더 윤택하게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이렇게 되여 농장에서는 도로량옆에도 줄당콩을 심게 되였다. 올해에도 농장에서는 줄당콩풍년을 마련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살림집주변에는 물론 도로량옆에도 줄당콩을 많이 심었다.

품을 들인 보람으로 그 어디나 자랑스러운 줄당콩숲이 펼쳐졌다.

제2, 5작업반의 줄당콩숲은 더욱 자랑스럽다. 살림집주변과 포전도로옆에 왕성하게 자란 줄당콩숲은 볼수록 흐뭇하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당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줄당콩을 생산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비배관리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시대의 창조물들에 비낀 값높은 삶

속도전청년돌격대 제7려단 2대대 대대장 리광일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이며 선군시대 공로자인 리광일동무의 생은 돌격대제복과 함께 흘러왔다.

피끓는 청춘시절부터 오늘까지 수십년간 그는 돌격대제복을 입고 시대의 기념비들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건설에 참가하였다.

북부철길과 9.9절거리, 청년영웅도로, 만경대닭공장과 두단오리공장, 룡악산샘물공장과 만수대거리 살림집…

그처럼 곳곳마다에 빛나는 창조물들에는 당과 수령, 조국을 받드는 억센 뿌리가 되려는 헌신의 마음을 지니고 지혜와 열정, 땀을 아낌없이 바친 리광일동무의 위훈의 자욱, 값높은 삶의 자욱이 비껴있다.

건설자의 삶의 흔적은

—건설자는 건축물마다에 애국의 마음을 남겨야 한다.

이것은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한 그날부터 리광일동무가 간직해온 인생의 좌우명이다.

건설자들이 지나간 곳에는 그들의 흔적이 남는다. 그것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그 창조물들은 세대를 이어 물려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때문에 건설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애국의 구호, 량심의 구호를 높이 들고 건축물마다에 불같은 열정과 성실한 땀을 묻어야 한다. 청년영웅도로건설때였다. 리광일동무가 속한 대대는 어느 한 다리의 기둥기초공사를 맡아하게 되였다. 수십개나 되는 다리기둥의 기초굴착공사도 힘겨웠지만 콩크리트치기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그런데 시작부터 모래가 딸렸다. 공사는 굼뜨게 진척되였다.

리광일동무는 모래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해 밤길에 나섰다. 홰불을 들고 강을 오르내리던 그는 작업장이 가까운 어느 한 곳에서 끝내 모래원천을 찾게 되였다. 콩크리트치기에 알맞춤한 질좋은 모래였다. 너무 기뻐 모래를 한줌 쥐고 이리 보고 저리 보던 그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졌다. 모래에 약간의 흙이 섞여있었던것이다.

(만년대계의 창조물에 한점의 티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는 가지고온 바께쯔에 모래를 담아가지고 강물이 흐르는 곳으로 뛰여갔다. 그리고는 물에 씻고 또 씻었다. 그렇게 하기를 몇번…

대대장이 밤이면 침실을 나서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격대원들이 달려왔을 때는 시간이 퍼그나 흐른 뒤였다. 대원들은 무드기 쌓여있는 모래무지들만 젖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는 그들에게 리광일동무는 웃으며 말하였다.

《모래원천을 찾았소. 물에 씻으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합격품모래요. 이제는 공사를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게 되였으니 래일부터 돌격전을 벌립시다.》

대원들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물에 씻지 않은 모래와 씻은 모래를 쥐고 번갈아보았다.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만큼 물에 씻지 않은 모래속에 섞인 흙은 극히 적은 량이였다. 하지만 리광일동무는 그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건설자의 량심을 실천으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대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

리광일동무의 대대가 룡악산샘물공장을 건설하던 나날이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과 달이 흘러 어느덧 조업을 앞두었을 때였다.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이 비낀 공장을 돌아보고난 대원들은 주변의 산으로 올랐다. 풍치수려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공장의 전경은 참으로 아름다왔다. 아담하고 산뜻하게 건설된 생산건물과 여러동의 보조건물들, 번듯하게 포장된 구내도로며 공장을 둘러싼 갖가지 나무들과 꽃들…

대원들은 긍지높은 추억을 안고 건설의 나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수도시민들에게 질좋은 샘물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으며 공사기일을 앞당겨온 그들이였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문득 한 대원이 혼자말처럼 뇌이였다.

《후날 사람들이 공장을 건설한 우리를 기억할가.》

그러자 다른 한 대원이 사람들이 기억할수 있게 흔적을 남기는것이 어떤가고 말하였다. 그때 리광일동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였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여기서 일하며 살게 될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모를수도 있소. 그렇다고 이런저런 흔적앞에서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할것이 아니라 마음을 남겨야 하오. 먼 후날에도 내가 이 창조물의 건설자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는 마음을 말이요. 우리 언제나 마음을 남기는 건설자라는것을 잊지 맙시다.》

마음을 남기는 건설자!

대원들은 그 말을 외우고 또 외웠다. 가슴에 정으로 쪼아박듯.

삶의 향기—헌신

청년돌격대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고 맏형과 맏누이도 있는 정다운 집이며 돌격대원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창조와 위훈의 길에 내세워주는 하나의 혁명대학이다.

고향과 나이, 성격과 취미는 서로 달라도 돌격대원모두의 가슴에 간직된 지향은 하나—당의 부름에 피끓는 청춘을 바쳐가는것이다.

리광일동무도 고락을 같이하는 동지들속에서 소대장, 중대장을 거쳐 대대장이 되였다. 대대를 위하는 그의 마음은 불같이 뜨겁고 웅심깊다.

이곳 대대를 찾는 사람들은 한폭의 그림을 방불케 하는 대대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규모있고 깨끗하게 꾸려진 병실들과 사무실, 식당, 대대가 자리잡은 곳에 심은 수백그루의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 청년들의 심리에 맞게 꾸려진 야외휴식터, 돼지, 닭, 오리, 토끼 등이 옥실거리는 특색있게 건설된 집짐승우리들, 추운 겨울에도 푸르싱싱한 남새들을 생산할수 있는 수백㎡의 온실 그리고 버섯재배실과 여러정보의 부업지…

《그때는 저를 비롯한 돌격대원모두가 변모된 대대의 오늘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 못하였습니다.》

우리와 만난 대대초급일군인 김명호동무의 말이였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해전 대대병실을 새로 지을 때였다. 리광일동무는 대원들에게 커다란 종이말이를 펼쳐보이였다. 순간 모두의 입에서 《야—》 하는 탄성이 울려나왔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려진 대대의 모습이 한눈에 안겨오는 전망도였다. 그때에야 대원들은 리광일동무가 왜 하루일을 끝내고는 날이 새도록 책상에 마주앉아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풀게 되였다. 집단을 위하고 대대를 사랑하는 대대장의 마음이 그대로 비껴있는 전망도는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그러면서도 건설에 필요한 자재는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걱정이 누구에게라없이 갈마들었다. 그들의 생각을 읽은듯 리광일동무는 힘있는 어조로 말하였다.

《하자고 결심하면 못해낼 일이 없소. 대대를 우리 손으로, 우리 청춘들의 정다운 보금자리로 멋들어지게 꾸려봅시다.》

그는 늘 그렇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일해왔으며 동지들과 집단을 위해 자기를 아낌없이 바쳤다.

어느해 겨울에는 휴가가는 대원들모두에게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마련한 새 털모자며, 장갑 등을 안겨주었고 대원들이 갈아입을 내의도 마련해주었다. 녀대원들인 경우 그들의 화장품과 지어 실, 바늘에까지 마음을 쓰며 그들의 생활을 친오빠의 심정으로 돌봐주었고 새 가정을 이루는 대원들의 결혼상도 성의껏 차려주었다. 대대의 한 성원에게는 자기가 배정받은 살림집도 서슴없이 내주었다.

언제인가 대대에 있는 세쌍둥이의 막내 은혜가 료양을 갔다온적이 있었다. 언니들에 비해 몸이 약한 그였다. 그래서 리광일동무는 그의 등을 떠밀어 료양소로 보내였었다. 그가 대대로 돌아오자 리광일동무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다. 오래간만에 집에 들어선 아버지를 보고 리광일동무의 자식들이 기뻐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나 리광일동무는 안해에게 은혜의 건강관리를 부탁하고나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때였다. 소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그의 손목을 잡고 집에서 쉬고 가라고 졸랐다. 리광일동무는 그러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철이 들면 너도 아버지의 심정을 알게 될게다. 너희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책임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말이다.》

리광일동무는 앉으나서나 대대를 생각하였다. 대대를 위한 그의 사색과 탐구는 끝없이 이어졌고 그것은 실천으로 옮겨졌다.

이런 리광일동무였기에 그는 돌격대원들의 앞장에서 꾸리기사업도 힘있게 내밀었다. 맡은 대상건설을 하면서 꾸리기도 함께 내밀자니 그의 어깨에는 더 큰 짐이 실리게 되였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뛰여다니느라 수척해진 그를 보며 대원들이 걱정할 때마다 리광일동무는 짐이 무거울수록 그만큼 보람이 더 큰 법이라고 웃으며 말하군 하였다. 오늘 그의 대대는 맡은 혁명과업수행과 생활문화확립 등 모든 면에서 려단은 물론 속도전청년돌격대적으로 제일 앞선 단위로,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꽉 차넘치는 전투력있고 단결된 집단으로 되였다. 그 나날 리광일동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표창장을 받아안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대대는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았다.

오늘도 리광일동무는 돌격대제복을 입고 생을 빛내일 일념안고 삶의 자욱을 값있게 수놓아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욱

리광일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김만유병원 흉부외과 의료일군들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지니고

올해 1월 어느날이였다. 맵짠 추위가 대지를 얼구고있었지만 최원일동무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르고있었다. 그의 귀가에는 과에서 진행된 수술협의회결과를 알려주며 과장 박금혁동무가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단 한번의 수술로 동무의 병을 완치시킬 방도를 찾아냈소!》

자기의 난치성질병을 여러번의 수술도 아닌 단 한번의 수술로 고칠 방도를 찾아냈다니 그 단 한번을 위하여 의료일군들이 이어왔을 고심어린 탐구의 낮과 밤들이 헤아려져 그는 잠을 이룰수 없었다.

그 시각 흉부외과 의사실에서는 부과장 최칠성동무가 책상을 마주하고있었다. 지난 시기 경험과 교훈을 분석해보며 수술준비를 검토해보던 그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집도자와 함께 퇴근하고싶어 들렸다면서 들어서는 사람은 박금혁동무였다.

《매번 수술칼을 쥘 때마다 시험장에 나서는 심정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인간생명의 기사가 아닙니까. 우리의 이 손을 믿고 당이 맡겨준 수술칼에 정과 사랑, 실력을 다 담아 환자를 꼭 소생시킵시다.》

그들은 말없이 두손을 꽉 마주잡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일군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다음날 아침 흉부외과수술실에서는 영예군인인 최원일동무에 대한 수술이 진행되였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는 의지를 안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침착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진행한 수술은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어떤 우연이 준 성공이 아니였다. 인간애를 지닌 의사에게는 못 고칠 병이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좌우명으로 삼은 그들의 높은 림상기술과 완벽한 수술전술, 세련된 수술수기의 결합이 낳은 성공이였다.

수술전준비로부터 련속수술과도 같은 수술후치료문제에 대하여 누구보다 마음을 많이 써온 박금혁동무의 불같은 정성은 과의료일군들을 영예군인의 회복치료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맡은 환자가 완치되기 전에는 집에 올 생각을 아예 말라는 가족들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담당간호원 박경숙동무가 환자의 침상을 지켜 맞이한 새날은 얼마이며 과의료일군들이 환자와 한 집안식구처럼 모여앉아 오락회를 벌린 날들은 또 얼마였던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도 읽어주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도 전해주며 환자를 고무격려해준 의사문성병동무,

환자에게 수술적부담을 적게 주기 위하여 기발한 치료방법으로 회복의 날을 앞당긴 최칠성동무…

한 영예군인을 대오에 다시 세우기 위하여 100일낮, 100일 밤을 치료전투로 지새우며 환자의 친혈육이 되여준 그들의 모습은 최원일동무의 가슴에 천리마시대 보건일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소중히 간직되였다.

병원문을 나서던 날 최원일동무는 목메여 말하였다. 우리 외과의사들이 피우는 정성의 꽃, 그것은 곧 인민의 생명을 제일로 여기는 우리 당에 선군시대 보건일군들이 드리는 보답의 꽃이라고.

그 꽃향기 풍기는 내 조국의 어디서나 우리는 듣는다. 이 땅에 넘치는 인간애의 노래, 인민의 락원을 펼쳐주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를!

본사기자 조향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찾아 리준식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7월 31일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그이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방문단은 이날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희극 《산울림》 공연 원산에서 진행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 공연이 동해의 항구문화도시 원산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냅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때에 진행되는 경희극 《산울림》 공연은 시작된 첫날부터 커다란 감화력과 견인력으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래일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의의있는 시대적문제를 밝혀내고있는것으로 하여 선군시대의 인간들이 따라배워야 할 훌륭한 교본인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기 위하여 수많은 군중이 극장으로 모여들고있다.

근 반세기전 강원도립예술극장 (당시) 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진행한 경희극 《산울림》을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으로 또다시 강원땅에서 보게 되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남다른 격정과 흥분에 휩싸여있다.

이들은 공연관람을 통하여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내달려온 1960년대의 천리마기수들처럼 새세기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때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래일을 맞이할수 있다는 생활의 참된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공연을 관람한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폭풍같은 반향이 일어나고있다.

공연관람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의 실효모임들이 진행되고 천리마시대의 산울림을 선군시대의 산울림으로 더욱 메아리치게 할 결의에 넘친 일터마다에서는 새로운 위훈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대고조진군에 힘찬 박차를 가하고있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계속혁명의 메아리를 울리며 경희극 《산울림》 공연은 계속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열렬한 칭송의 마음을 활달한 필체에 담아간다.
—함흥학생소년회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모든 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명천장공장 일군들과 기술자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열의를 안고 명천장공장에서 생산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의 대고조는 21세기 정보산업시대의 대고조이며 새로운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자력갱생의 정신은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리려는 비약과 혁신의 정신입니다.》

올해초 공장에서는 장출하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놓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모임이 있었다.

《우리는 곡자공정을 CNC화한것으로 만족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작업의 하나인 장출하공정도 CNC화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배인은 장출하공정의 CNC화를 당창건 65돐전으로 완성하자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을 불러일으켰다.

공장에서 곡자공정의 CNC화에 달라붙은것은 3년전이였다.

자체의 힘으로 곡자공정의 CNC화를 하자고 하니 제일 걸린것은 기술력량이 부족한것이였다.

공장에서는 기술자들이 지식을 더욱 다져나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로동자들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실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그와 함께 곡자공정의 CNC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다. 매달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 설계를 완성하고 설비들을 새롭게 제작, 배치하자니 쉽지 않았다. 시운전에서 실패했을 때에는 손맥이 풀려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하여 지난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기간에 끝내 곡자공정을 콤퓨터로 조종하는 생산체계를 확립하고야말았다.

곡자공정이 CNC화되니 된장, 간장의 질이 높아지고 로력을 훨씬 절약하면서도 생산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게 되였다.

—어렵다고 하던 곡자공정의 CNC화를 자체의 힘으로 실현한 기세로 장출하공정의 CNC화를 완성하자.

일군들도 기술자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공장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이 장출하공정의 콤퓨터화가 실현된 여러 공장들을 찾아가서 배우도록 하였다.

그리고 집체적지혜를 합쳐 공장의 실정에 맞게 설계를 완성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자체의 힘으로 프로그람이 작성되고 설계가 완성되자 공장에서는 생산을 계속 내밀면서 새로운 설비제작, 합리적인 설비배치를 위한 전투를 동시에 밀고나갔다.

그러던 지난 6월 그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받아안게 되였다. 그들의 가슴은 세찬 흥분으로 높뛰였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장출하공정의 CNC화를 더욱 다그치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

목표를 더욱 높이 세운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의 룡마를 타고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혁신을 일으킬 포부와 지향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로주봉

집단이 자랑하는 준마처녀들

강계은하피복공장 가공3직장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현장에 들어서니 사르륵사르륵 하는 재봉기소리들이 노래가락처럼 들려왔다.

혁신의 새 소식이 가득 실린 속보판이며 붉은 줄이 쭉쭉 뻗어올라간 사회주의경쟁도표판, 알른알른한 기대며 멋진 제품들…

우리는 직장의 소문난 혁신자들이라는 김성심, 김은심동무들의 기대앞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실밥 한오리 흘릴세라 일을 깐지게 하면서 잽싸게 기대를 돌리는 그들은 마치도 자매간인듯 이름도 생김새도 비슷하였다.

《우리 직장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자매〉 혁신자라고 정담아 부릅니다.》

그들은 다정한 사이지만 일에 들어서면 서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직장장 황이남동무는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몇해전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물감장사처럼 살림살이를 정말 깐지게 한다고, 버리는것이 하나도 없는 공장이라고 자기들의 일솜씨를 헤아려보실 때 온 직장, 온 공장이 기쁨과 행복에 휩싸였었다고 하면서 김성심동무는 감격의 그날을 되새기였다.

《그날 은심이와 난 영광의 일터에서 한생 변함없이 〈자매〉 혁신자로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계획을 넘쳐 수행해도 만족을 몰랐고 기능이 어린 재봉공들을 위해 스스로 퇴근도 미루어갔다. 신입공들과 함께 한밤을 지새우던 불같은 처녀들이였다.

20여년세월을 기대를 돌리며 위훈의 자욱을 수많이 새겨온 김옥진, 김영옥, 김승금동무들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 뜨겁게 하였던가.

중학교를 졸업한 꽃나이처녀시절에 나도 장군님 아시는 강계처녀가 되리라고 남먼저 직장으로 달려온 미더운 처녀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되였어도 처녀시절처럼 언제나 혁신자의 한모습으로 사는 오랜 기대공들이였다.

어찌 이들뿐이랴.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며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자기들의 발걸음도 따라세워가는 가공3직장의 종업원모두가 자랑스럽고 미더웠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인민들의 생활에 기쁨을 안겨주는 일이기에 이들은 제품 하나하나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있다.

본사기자

동림공업용천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드높은 열정, 빛나는 실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억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헌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달게 여기며 오늘의 1분 1초를 래일을 위한 위훈창조로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들끓고있는 공장으로 향하는 지배인 변광우동무의 마음은 무척 기뻤다. 생산에 필요한 많은 자재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이였다.

한밤중이였지만 공장에는 불빛이 환하였다. 작업장마다에서는 기대소리가 가락맞게 울리고있었다.

변광우동무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의 눈앞에 미더운 모습들이 안겨왔다.

황광필, 한은희동무며 부부혁신자들인 김승철, 김영숙동무들…

수십년을 한직종에서 일하여온 공장의 보배기능공들,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고 한 올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격정과 흥분을 누를길 없어 달려나왔다며 남먼저 기대를 잡고 힘찬 동음을 울린 그들,

어찌 이들뿐이랴. 새 세대 청년들의 열정 또한 보통 아니였다.

언제인가 직포직장을 돌아보던 지배인은 종전보다 더 많은 기대를 맡아다루기 위해 기대순회방법을 연구하느라 여념없는 김진희동무를 보게 되였다. 올해투쟁의 주공전선에 자기들을 세워준 당의 믿음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로동자들 누구나 뛰고 또 뛰며 일해가고있었다.

하기에 올해에만도 여러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창의고안하여 생산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매월 생산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그들이였다.

그 바쁜 속에서도 생산건물을 더욱 아담하고 깨끗하게 꾸리여 공장구내를 일신시킨 공장의 종업원들이였다.

오늘은 또 이렇게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생산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으니 얼마나 미더운가.

(고맙소. 동무들, 우리 힘과 지혜를 합쳐 더 많은 일을 하기요.)

변광우동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직포직장을 향하여 힘차게 걸음을 옮기였다.

본사기자 장은영

주인된 자각만고

구성시 남흥협동농장 작업반장 허옥동무는 농장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는 초급일군이다.

그는 작업반원들의 애국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해마다 알곡생산을 훨씬 높이였다.

그는 올해에도 작업반원들에게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깊이 심어주어 그들이 모든 농사일을 알뜰하게 하도록 하고있다.

그는 작업반원들의 생활도 진심으로 돌보아줌으로써 그들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고있다. 이러한 그를 작업반원들 누구나가 우리 작업반장이라고 부르며 따른다.

허옥동무는 오늘도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대오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백명진

제2의 6.25를 몰아오는 북침실동연습을 단죄한다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사상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들을 감행하고있다.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련이어 벌어지는 련합해상훈련들은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살을 노린 로골적인 도발행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우리 인민과 인류의 념원에 대한 극악한 도전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천안》호사건을 날조하고 그것을 구실로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분별한 련합해상훈련들을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범죄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1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대규모적인 련합해상훈련들은 우리 공화국을 해상과 공중에서 불의에 기습타격하기 위한 북침실동연습이며 핵전쟁연습이다.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조선동해에서 사상최대규모의 련합해상훈련이 감행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이번 훈련에 지난 시기 진행한 합동군사연습에 비해 10배이상의 무력을 동원하였다.

미국은 공화국북반부 전지역에 대한 《동시타격》을 진행하려는 침략적흉계로부터 출발하여 최신형공격수단들을 투입하였다.

작전반경이 1 000km이며 매일 150여회 전투폭격기를 출격시킬수 있어 일명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는 미제7함대소속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각종 전투기들과 조기경보기를 포함한 수십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조선동해에서 좁다하게 싸다니며 전쟁연습에 광분하였다.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는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무력을 장비한것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그것의 진입은 곧 전쟁의 개시를 의미하는것으로 통용되고 있다. 바로 그러한 항공모함이 훈련 전기간 사령탑의 역할을 하였다.

항공모함을 둘러싸고 방대한 무력이 북으로 《진격》하는것으로부터 련합해상훈련이 시작되였으며 그것을 거점으로 수십척의 전투함정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이 각이한 훈련에 들어갔다.

미해군전투기 《FA-18F 슈퍼 호네트EF》, 조기경보기 《E-2C 호크아이 2000》을 비롯한 수많은 항공기가 항공모함에서 출격하였으며 항공모함전단을 위시하여 그 전투력을 더욱 높이는 방향에서 훈련이 전개되였다.

훈련에 적용된 《작전계획》들과 정보, 훈련정형을 장악한 《죠지 워싱톤》호가 조선동해의 해상분계선가까이에 기여들어 군사연습을 지휘한것은 전례없는것으로서 명백히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을 단행하기 위한것이다.

중국신문 《국제선구자안내보》는 《미국남조선군사연습으로 가상해본 〈제2차 조선전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남조선군사연습에서 주되는 반잠임무를 맡게 될 〈죠지 워싱톤〉호 항공모함전투집단은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해안선으로부터 수백km 떨어진 곳에서 순항미싸일과 함재기들로 평양에 1차타격을 가할것이다. 그로부터 얼마지나지 않아 일본, 괌도주둔 미군의 새로운 폭격이 시작되며 미군정보기관들이 사전에 지정해준 조선의 군수공업시설들과 지휘소가 자리잡고있을만 한 지역들에 련이어 폭격을 가할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가 조선전쟁도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것의 참가하에 진행된 련합해상훈련의 공격적성격을 적라라하게 밝히고있다.

미국은 련합해상훈련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전쟁에도 동원하지 않았던 최신형전투기 《F-22A랩터》를 처음으로 투입하였다.

이 전투기는 항속거리가 3 000여km이고 작전반경이 700여km로서 태평양전지역에 언제든지 전개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현재 미공군의 주력을 이루는 《F-16》전투폭격기와의 모의공중전에서 《절대적우세》를 나타낸 매우 위험한 핵선제공격수단이다.

미국은 그처럼 위험천만한 전투기를 일본의 가데나기지에 전진배치하였으며 련합해상훈련에 들이밀었다.

지어 《리륙후 30분이내에 북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할수 있다.》, 《1시간이내에 북전역에서 작전수행이 가능하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훈련에 《F-22A랩터》전투기뿐아니라 《F-16》전투폭격기와 《A-10》공격기, 《KC-135》공중급유기 등 200여대의 항공기와 20여척의 각종 함선들, 8 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미국의 VOA방송은 이것을 두고 미국의 대규모병력이 조선반도에 전개된것은 지난 1976년 8월 판문점사건이후 34년만에 처음이라고 보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훈련에 막대한 무력을 투입하고도 그것을 한갖 그 누구의 잠수함이나 찾아내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드는것은 말그대로 언어도단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련합해상훈련전과정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한것으로 판통시켰다.

훈련에 참가한 무력전반이 남조선강원도의 앞바다에 전개되였으며 항공기들의 군사연습은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 진행되였다.

《F-22A랩터》를 비롯한 전투기들이 우리의 핵시설과 미싸일기지, 잠수함기지, 공군기지 등을 가상한 목표물들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과 정밀타격연습을 벌렸다.

울릉도와 독도상공에서 미공군 제18비행단의 《KC-135》공중급유기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사상 처음으로 전투기들의 폭탄탑재량과 비행시간을 늘일 목적으로 그 비행기들에 대한 공중급유를 하였다.

특히 27일에는 미국과 남조선괴뢰군이 실탄으로 우리의 잠수함과 함선, 비행기들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대공, 대함함포사격과 어뢰발사, 폭뢰, 기뢰투하연습을 진행하였다.

《북의 싸이버공격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미국의 싸이버사령부가 동원되여 우리의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한 네트워크훈련도 감행하였다.

말그대로 조선동해에서 강행된 련합해상훈련은 공화국북반부가까이에 방대한 무력이 전개되여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지상에서 립체적으로 벌어진 북침실동연습이고 핵선제공격연습이였다.

문제는 이번 련합해상훈련이 단순한 한 차례의 《무력시위》로 끝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련합해상훈련을 보다 확대하여 년말까지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대잠수함훈련을 비롯한 10여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릴것을 공표하였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에 미국남조선《련합군사령부》의 주도하에 지난해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미군병력과 남조선괴뢰군 수만명이 동원되여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게 된다. 결국 미국은 년중 내내 침략무력을 증강하여 북침전쟁불장난소동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직전의 위험국면으로 더욱 바싹 몰아가 기어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련이어 벌리는 련합훈련들이 그 규모와 기간 그리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사상최대의 선행침략전쟁연습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2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는 대규모적인 련합해상훈련들은 조선반도에 제2의 6.25를 몰아오는 전주곡이다.

오늘 미국과 리명박역적패당은 60년전 미제와 만고역적 리승만이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에로 몰아가던 그때처럼 무분별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가 분렬된 직후 전조선을 타고앉을 야망밑에 남조선괴뢰들을 사촉하여 38°선상에서 경계선충돌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우리측 지역들에 대한 무장도발을 로골화하다가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이번에 또다시 그 수법대로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대규모련합해상훈련들을 벌려 제2의 6.25로 이어가려고 획책하고있다.

판문점 남측지역에 각종 중무기들을 전개하고 대조선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끌어올렸다. 일본 오끼나와에 배치되여있는 전략정찰기 《RC-135》와 전자정찰기 《EP-3》이 조선반도에 날아들어 정탐행위를 감행하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군사분계선 최전방지대와 판문점 중앙분리선에까지 나와 돌아치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망발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은것이다.

지난 세기 조선전쟁전야에 있은 미국방성과 국무성우두머리들의 서울행각과 미대통령특사 덜레스의 38°선시찰그대로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행각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계획이 군사와 외교적견지에서 최종검토가 끝나고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한다.

실제상 미국은 훈련개시날자와 기간을 정하는데서 그야말로 지난 세기의 6.25를 모방하였다.

조선전쟁도발시기 미군사고문단 단장이였던 로버트는 미국이 6월 25일을 전쟁개시날자로 택하게 된 리유에 대해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실토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던 그때처럼 7월 25일 일요일에 훈련에 진입하였다.

미국은 작전명을 《불굴의 의지》로 표기하였으며 훈련장소에 《필승사격장》과 《승진훈련장》 등을 포함시켰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죽은자들을 《참전용사》로 추어올리며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7월 26일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포고문 《2010 조선전쟁참전용사 정전기념일의 날》에서 《조선전쟁참전용사들이 전투에 림했던 원칙을 되새기자.》고 력설하였다.

리명박역도 역시 상전의 본을 따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조선전쟁에 끌려나왔던 추종국들의 언론에 그 무슨 글을 기고하는 추태를 부렸다.

괴뢰국회에서는 6.25전쟁이후 처음으로 조선전쟁에 가담하였던 나라들에 《감사》를 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는 고용병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하는 놀음을 벌렸으며 괴뢰국방부는 년말까지 지난 전쟁시기의 락동강전투, 인천상륙작전 등을 련속 재현하려 하고있다.

친미사대매국역적인 괴뢰통일부장관 현인택은 그 무슨 《제막식》에 나타나 《참전용사의 희생》이니, 《잊지 않을것》이라느니 하고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 《북에 단호히 대처》해나갈것이라는 망발을 줴쳤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 6.25전쟁은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여 전조선반도를 식민지로 만들고 나아가서는 아시아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할 야망밑에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괴뢰들이 도발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리명박역도가 《6.25전쟁을 북에 의한 남침》으로, 《천안》호사건을 《북의 군사적도발》로 떠들면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련합해상훈련들을 강행하는것은 침몰된 괴뢰해군함선이 북침실동연습을 위한 희생물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처럼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조선동해에서 감행한 련합해상훈련과 그를 전후한 사태발전들은 그 시기와 동원된 무력, 훈련지역과 내용 등 모든 면에서 6.25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련합해상훈련들은 또한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쥐기 위해 감행하는 로골적인 도발행위이기도 하다.

미국은 《천안》호사건을 통하여 남조선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의 주요구성부분의 하나로 확고히 장악하였으며 그 지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조선반도는 미국이 잠재적인 적수로 보는 중국과 로씨야와 잇닿아있으며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조선반도가 미제의 침략적대아시아전략실현의 요충지라고 한다면 남조선은 그들이 직접 발을 디디고있는 군사적발판이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을 놓치는것은 대조선전략은 물론 대아시아전략실현의 전초기지를 잃는것으로 된다.

남조선을 거점으로 세계제패전략을 실현하려는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이며 침략적야망이다.

7월 21일 미국방장관이 리명박역도에게 태평양지역을 지키는것은 《바로 남조선》이며 《남조선이 중심이 돼 지킨다. 여기서 모든것을 다 통제하고있다.》고 떠벌인것은 그에 대한 론박할수 없는 증거로 된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영원히 틀어쥐려고 꾀하고있다.

올해 2월 1일에 발표한 《4년주기의 국방정책재검토보고서》에서 미군의 남조선주둔형식을 《전진배치》로부터 《전진주둔》으로 확대할것이라고 명기하였다.

3~4년안에 남조선에서 《전진주둔》제도를 완전히 시행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을 전세계의 비상사태지역에 들이밀고 저들의 《세계전략》을 보다 신속히, 강력히 추진하려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합법화하는데서 말썽거리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까지 연기하기로 괴뢰당국과 합의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로 미국은 남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철저히 얽어맸다.

미국은 또한 저들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오끼나와를 영구적인 기지로 만들기 위해 후덴마미군기지문제를 일본정부와 타결하였다.

이 기지에는 길이가 4 000m인 활주로가 2개 있으며 그 면적은 일본에서 제일 큰 나리따국제비행장보다도 2배나 크다. 기지의 탄약고에는 극동지역에서 2개의 국부전쟁을 동시에 치르는데 충분한 탄약이 저축되여있다.

총체적으로 오끼나와에는 주일미군무력과 시설의 75%가 집중되여있으며 해외침략의 선봉대인 미해병대의 아시아태평양방면주력이 둥지를 틀고있다.

결국 미국은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실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남조선과 일본을 하수인으로 단단히 틀어쥐고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체제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정치군사적기반을 확고히 마련하였다.

남조선과 일본을 저들 품안에 더욱 깊숙이 끌어들인 미국은 련합해상훈련을 동북아시아지역에서 《3각군사동맹》의 《위력》을 시위하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로 삼았다.

《죠지 워싱톤》호에 일본해상《자위대》의 《장교》들이 오르고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남조선의 최대상륙함이라고 하는 《독도》호와 미군이지스함 등이 기동훈련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3위1체》를 보장하였다. 미국이 《3각군사동맹》을 완성하여 지난 조선전쟁시기처럼 남조선과 일본을 대조선침략전략과 세계제패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7월 27일 미국방성과 국무성의 차관보들이 국회청문회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이후 미, 일, 남조선사이의 《안보협력은 더욱 강화되였다.》고 뇌까렸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해방일보》 7월 27일부는 《군사연습을 빌어 〈일석삼조〉를 노리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중국청년보》 26일부는 《조선주변에서 칼을 휘두르는것은 중국의 바다와 하늘에 뜻을 둔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중국국제문제연구기금회 전략연구쎈터 집행주임은 《미국은 련합훈련을 통하여 미국남조선, 미국일본동맹관계를 공고히 하고 승격시켜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전체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주도하려 한다.》고 하였으며 군사전문가 온빙은 미국이 훈련을 구실로 다른 나라들에 동북아시아문제에서 저들이 《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제해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 립장을 보여주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며 미국의 강권정치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였다.

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광증으로 지금 조선반도에는 전쟁전야의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였으며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교란되고있다.

올해는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미국은 마땅히 이와 관련하여 저들의 침략행위를 심각히 반성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제의한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적극 나섰어야 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도발에 더욱 광분하고있는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용납 못할 도발이며 로골적인 선전포고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력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적조선인민군이 미제의 침략에 즉시 반공격으로 넘어가 3일만에 적들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고 전쟁 3년만에 도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위대한 승리를 기록하고있다.

만약 또다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든 자위적억제력을 총발동하여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총결산하고야말것이다.

미국의 침략의 6.25뒤에는 언제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전승의 7.27이 있다.

주체99(2010)년 7월 31일
평 양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에로 부르는 불멸의 대강

우리 민족은 6.15의 기치높이 류례없는 반통일도전을 짓부시며 거족적인 자주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발표 19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조국해방 46돐을 앞두고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던 때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 겨레를 민족대단합에로 부른 로작을 발표하신것은 거대한 사변적의의를 가진다.

로작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구한 혁명투쟁의 나날에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한 민족대단결사상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하며 그래자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문제이며 그 본질적내용을 이룬다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하나로 굳게 뭉쳐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기초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이라고 밝혀주시였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여야 개별적사람들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있다.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는것은 우리 민족이 체험한 피의 교훈이다.

자기가 나서자란 조국을 사랑하는것은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세월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온 민족으로서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리 강하다.

자기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 60여년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렬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수치이다. 조선사람의 피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분렬주의적망동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과 그 실현방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자면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뛰여넘어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하지 않고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족을 적대시한다면 조국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수 없을뿐만아니라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개별적주의주장보다 민족을 더 귀중히 여기고 계급이나 계층의 리익보다 조국통일이라는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더 앞세운다면 우리 민족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란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해내외동포들사이의 접촉과 래왕, 대화를 적극 발전시키고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통일애국적인 모든 정당, 단체, 각계각층 동포들의 조직적인 련합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 북과 남의 래왕과 접촉을 가로막는 온갖 정치적, 법률적장애를 제거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은 민족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민족번영의 전력사적과정에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으로, 참다운 교과서로 된다.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리론실천적업적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여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운동을 전진시키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떨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현시기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의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을 한데 묶어세우고 그 위력으로 내외분렬주의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과감히 짓부셔나가는것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민족자주의 선언인 동시에 민족단합의 선언이다. 북남선언들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하는 새 세기 가장 정당한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의 차이를 뛰여넘어 온 민족이 대단결하는것은 중요한 현실적과제로 나선다.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정책을 끝장내고 북남협력과 접촉을 가로막는 모든 제도적장치를 제거하는것은 민족대단결실현의 기본요구이다.

오늘 민족대단결에 대한 태도는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본척도이다. 민족대단결을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반대하고 방해하는자는 매국노이다.

지금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패당은 침략적인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북남관계를 갈수록 헤여날수 없는 파국에로 몰아넣고있다. 최근에는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미국의 핵항공모함전단까지 끌어들여 위험천만한 해상련합훈련을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북침전쟁위험을 더욱 고조시키였다. 괴뢰들은 파쑈적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날로 강화하고있다. 이것은 6.15통일시대의 전진을 방해하면서 민족의 대단결을 가로막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반통일세력은 저절로 물러서지 않으며 궁지에 몰릴수록 더욱 필사적으로 발악하는 법이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반대해나서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 진보민주세력들은 굳게 련대련합하여 6.15통일시대의 장애물인 보수패당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할것이다.

자주, 민주, 련북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겨레의 투쟁을 가로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 민족번영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이 있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온 겨레의 지지옹호가 있는 한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우리 민족은 시련이 겹쌓일수록 6.15의 기치밑에 더욱 굳게 단합해나갈것이며 그 위력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이 땅우에 통일된 조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박 철 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역적

괴뢰통일부장관 현인택이 겨레의 통일념원에 찬물을 끼얹는 해괴한 망발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며칠전 남조선강원도 전연지역에 나타난 역도는 악화된 현 북남관계를 《푸는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어떻게 풀고 미래가 어떻게 될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느니, 북남관계가 《1보 전진한 이후 2보 후퇴》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느니 하고 떠벌이였다. 바로 여기에서 북남관계의 개선을 추호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 현 파국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현인택역도의 반통일적립장이 다시금 명백히 립증되고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북남관계는 민족의 운명, 나라의 평화와 통일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 일촉즉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북남관계를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과연 외면할수 있겠는가.

더우기 북남관계가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 바로 현인택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배치되는 반통일각본인 《비핵, 개방, 3 000》을 고안해낸자가 현인택이며 지난 10년간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는다.》고 고아대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교류를 파탄시키고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킨것도 현인택이다. 함선침몰사건이후 역도가 그 무슨 《대북강경조치》를 운운하며 북남관계전면폐쇄를 선언하여 민간단체들사이의 소소한 래왕과 접촉마저 차단시키고 개성공업지구사업마저 위태롭게 만든것을 우리 겨레는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현인택역도는 그 엄청난 반통일죄악에 대해 온 민족앞에 사죄하고 《통일부》장관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릴 길이 열릴수 있다.

그런데 역도가 아직도 북남관계를 《푸는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풀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소리나 하고있는것은 그가 의연히 반통일적립장을 버리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으로서 북남관계의 개선과 반통일대결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내외여론에 대한 로골적인 우롱이며 도전이다. 역도의 궤변은 따지고보면 현 북남관계를 저들의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에 기초하여 《풀어야 한다.》는 수작이다. 이것이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는 소리가 아니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한것이다.

현인택이 늘어놓은 《1보 전진, 2보 후퇴》망발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결국 그것은 《대북정책》을 전환하여 이전 《정권》들처럼 원칙없이 북과의 관계개선에 나서면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된다는것인데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 있는자의 수작인가. 하긴 보수《정권》출현이전과 판판 다른 파국적인 현 북남관계를 《제대로 된 남북관계》로 보는자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원래 현인택은 학자연하며 희떠운 소리들을 종종 늘어놓아 사람들을 한두번만 아연케 하지 않았다. 《연목구어》(나무에서 물고기를 얻으려 하는것)라는 남의 나라 성구를 입에 올리며 동족을 함부로 비난하여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낸것도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뚱딴지같이 《1보 전진, 2보 후퇴》라는 말까지 도용하며 반통일정책을 합리화하였으니 실로 식자우환이 아닐수 없다.

역도의 《1보 전진, 2보 후퇴》망발은 본질에 있어서 북남관계의 개선보다 악화가 낫고 통일보다 분렬이 낫다는 극악한 반통일궤변으로서 괴뢰패당이 집요하게 떠들고있는 이른바 《원칙고수》론의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

현인택이 《미래》니 뭐니 하며 북남관계의 《2보 후퇴》를 《우려》하였는데 그자신이 물러나면 우려거리가 사라지는것으로 된다. 북남관계개선의 원칙과 방도는 이미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해 정확히 밝혀졌다. 선언들에서 밝힌대로만 하면 하나도 제기될것이 없다. 지난 10년간의 현실이 그것을 확증해주었다.

현인택이야말로 민족의 통일번영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겨레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반통일역적이 틀림없다.

현인택과 같은 역적이 《통일부》장관의 감투를 쓰고 북남관계의 길목에 틀고앉아 한사코 방해를 놓는 한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는 언제가도 풀리지 못한다. 우환거리는 제거되여야 한다.

최 철 순

자주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 위대한 업적

조국해방 6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뜻깊은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가슴가슴은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성취하시고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항일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는 근 반세기동안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해방의 새봄을 가져다준 민족사적사변인 동시에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고무추동한 세계사적사변이였다.

하기에 오늘 국제사회계는 세계민족해방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이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 제1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의 해방은 아시아나라 인민들에게 있어서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조선인민이 일제와의 대전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무비의 헌신성과 탁월한 전략전술이 있었기때문이다.

김일성동지는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조선인민의 해방의 은인이시다.》

꾸바국제정치연구소 지도리사회의 한 성원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은 강대한 일제침략군을 반대하는 가장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이였다. 이 투쟁의 력사는 어느 나라 당, 어느 나라 인민, 어느 나라 력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빛나는 력사이며 세계혁명운동사에 금문자로 영원히 아로새겨야 할 아름답고 위대한 서사시이다. 그렇기때문에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의 고귀한 경험은 오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차게 고무하고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민주꽁고신문 《라브니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시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새시대를 개척하신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하여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능히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민족해방위업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것을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민족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직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 맞서야 하며 오직 조직적인 무장투쟁으로써만 제국주의침략자들을 타승하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에서의 항일무장투쟁승리후 세계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은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섰다.》

캄보쟈국가라지오방송은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상비적인 혁명무력에 의한 유격전의 형식으로 항일무장투쟁을 벌려나갈데 대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 유격근거지창설과 강화에서 나서는 문제들, 무장투쟁을 광범한 반일군중의 대중운동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등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군사로선과 방침들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백번 싸워 백번 다 이기시는 신출귀몰의 지략, 어떤 어려운 시련도 과감히 헤치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나가시는 강의한 의지와 신념, 인민을 믿고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어떠한 대적도 타승하시는 령장의 특출한 풍모로 하여 김일성주석각하의 명성은 일찌기 조선인민족의 전설적영웅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옳바른 혁명사상과 로선을 밝혀주는 문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와 략탈정책이 극도에 달하였던 지난 세기 20년대와 30년대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섰다. 당시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해방을 위한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은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옳바른 리론과 전략전술적문제들이 밝혀지지 못하였던것으로 하여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 력사적과제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비로소 옳바로 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선행리론의 제한성과 당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시여 이 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적문제들을 명시하시였다. 선행리론에서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을 프로레타리아혁명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오직 종주국로동계급의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한것으로 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은 독자적인 혁명이며 식민지예속국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은 자체의 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무장투쟁을 벌리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새로운 과학적인 사상리론과 로선을 밝히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독창적인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상과 로선을 구현한 항일혁명전쟁은 강도 일제에게 심대한 패배를 안기며 승승장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전쟁은 마침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던 세계피압박인민들에게 자기 힘을 믿고 떨쳐일어나 무장에는 무장으로 맞서 끝까지 싸우면 능히 압제자들을 타승하고 민족적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투쟁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주었다.

꾸바, 웰남, 짐바브웨, 모잠비끄 등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지도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이야말로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식민지나라 인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귀중한 본보기라고 격찬하였다.

마다가스까르련대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시여 조선의 광복을 이룩하시고 세계피압박인민들의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신 김일성주석은 20세기의 정치사에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기신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세계정치의 원로이시였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에짚트아랍예술문화공보협회 행정리사회 위원장은 《조선의 해방, 이것은 자주의 새시대가 도래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일성주석각하께서는 해방된 조국땅우에 모든 사람들이 고르롭게 사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시였다.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제도의 수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조선인민에게 넘겨주신 크나큰 재부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그이를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라고 부르고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라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제시하시고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 전법으로 항일혁명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민족재생의 은인, 인류해방의 구성이시며 세계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인류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제민족해방투쟁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자주시대와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백승의 력사를 창조해가는 조선인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에서는 집회가, 프랑스에서는 토론회가, 민주꽁고에서는 강연회가, 나이제리아에서는 사진전시회가, 남아프리카에서는 영화감상회가,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연회와 영화감상회들이 7월 17일부터 2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 민주꽁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나이제리아 련방수도 령토성 예술 및 문화리사회,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청년동맹, 인도네시아 드위미뜨라 뻐르까싸회사, 씨나르 안쫄회사, 바드쟈기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조선의 대답》, 《조선의 총대》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쳐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강위력한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군은 전후에도 미제의 끊임없는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켰으며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김정일총비서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와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당과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에 의하여 오늘 조선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되였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에서 교훈을 찾고 조선의 정당한 평화협정체결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프랑스주체 및 선군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굴복시킨것은 세계전쟁사에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김일성주석의 비범한 령군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사상에 기초한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우월성으로 전승을 안아오시였다.

주석께서는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묶어세워 나라의 정치군사적진지를 백방으로 강화하심으로써 전쟁승리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조선은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타격을 가함으로써 마침내 미국을 타승하였다.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민주꽁고 김정일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은 용감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 영웅적으로 싸움으로써 미제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기였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는 전적으로 주석의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전술,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발휘한 자기 수령에 대한 충실성,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 대중적영웅주의는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 ⁘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스웨리예인사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방글라데슈민족사회주의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하싸눌하크 이누는 7월 22일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인민이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이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3년간의 반미성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것은 인류력사에 특기할 사변이였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의 교훈을 망각하고 세계제패야망밑에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키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앞에 미제의 침략책동은 참패를 면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반제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우리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것을 확신하면서 반제반미투쟁에서 백승의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용감한 조선인민에게 련대성을 보낸다.

반제자주의 위대한 보검인 백전백승의 선군정치 만세!

같은 날 스웨리예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오스카르 뮐레비는 담화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로씨야언론들이 광범히 보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우리의 강경립장을 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을 로씨야의 언론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이따르—따쓰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은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면서 그에 보복성전으로 대답할것이라고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강행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소동에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고 전하였다.

다른 통신들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신문 《이즈베스찌야》는 미국과 남조선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내용을 소개하였다.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인터네트신문 《브즈글랴드》도 《성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에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강력한 핵억제력을 동원할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의도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복성전으로 될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고 전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사헬 및 사하라국가동맹 수뇌자회의 진행

사헬 및 사하라국가동맹 수뇌자회의가 7월 22일과 23일 챠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경제적난관을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발표된 최종선언은 수단대통령을 체포할데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을 배격하며 아프리카의 임의의 나라에 대한 제재와 강제적조치를 반대하는 동맹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선언은 동맹성원국들이 사막화와 가물, 식량 및 에네르기위기 등 난관들에 대처하여 집체적노력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7월 27일 한 텔레비죤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압력책동의 도수를 높이기 위해 이란과의 관계가 긴밀한 중동나라들에 군사적공격을 가할것을 계획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은 그를 통해 이란의 전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막다른 골목에 빠진 유태복고주의자들을 건져내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현 미행정부가 이전 부쉬행정부의 정책을 답습하지 말것을 경고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

유엔주재 팔레스티나상임대표가 7월 21일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리사회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스라엘당국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고있으며 특히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을 공격한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유태복고주의자들이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계속 감행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유엔안보리사회가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진행

제15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동맹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녀성, 어린이건강보호증진사업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전, 사회경제적발전과 통합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아프리카의 사하라이남지역에서 산모와 갓난애기사망률이 높아지고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그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동맹성원국들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최종선언이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자연보호구 건설

중국 흑룡강성에서 자연보호구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성에는 197개의 자연보호구가 꾸려져있는데 그 면적은 620만ha에 달한다.

이것은 성면적의 13.6%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

자연보호구가 많이 건설됨에 따라 야생동식물들의 보호조건이 개선되고있다.

제조업부문 생산장성

싱가포르에서 올해 6월에 제조업부문 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1% 증대되였다.

지진피해방지노력

니까라과정부가 있을수 있는 지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한 고리로 7월 24일 수도에서 지진발생을 가상한 민간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정부관리들을 비롯하여 약 1만 5 000명의 시민들이 건물과 살림집에서 일제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였다.

또한 소방대원들과 적십자성원들의 긴급구조훈련도 있었다.

유인우주비행계획

이란정부가 2019년까지 유인우주비행을 실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나라 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7월 23일 한 행사에서 이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란에 대한 서방의 압력과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들에 대처하여 그와 같은 계획이 추진되게 되였다고 언명하였다.

도시현대화계획

브라질에서 국제축구련맹 2014년 월드컵경기대회 준비사업의 한 고리로 최근 도시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12개 도시들에서 궤도전차와 지하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수단들을 현대화하고 경기장과 비행장 등 공공시설들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들이 추진되게 된다.

본사기자

스웨질랜드의 살림집들

또다시 표면화되는 미영마찰

오늘의 세계

최근 리비아에서의 원유 등 천연자원개발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영국사이의 마찰이 또다시 표면화되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영국원유기업체들이 리비아와 막대한 액수의 원유개발권을 따내기 위한 일종의 합의를 이룩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손꼽히는 원유매장지인 리비아에 눈독을 들이고있는 미국의 신경을 크게 자극하였다.

원유에 경제적명줄을 걸고있는 미국이 리비아의 원유개발권문제에서 영국에 선손을 떼운 격이 되였으니 비위가 상하지 않을리 만무하다. 속이 뒤틀린 미국은 1년전에 마무리된 로커바이사건협의자석방문제까지 꺼들며 소란을 피우고있다.

미국이 법석 떠들어대는 로커바이사건협의자석방문제란 어떤것인가.

로커바이사건은 1988년 12월 미국의 《판아메리칸》항공회사 소속 려객기가 영국의 스코틀랜드 로커바이상공에서 폭발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탑승자 250여명을 포함하여 모두 270명이 사망하였다. 사건이 일어난 후 미국과 영국 등 관련국들은 리비아의 이전 정보장교 2명을 사건협의자로 보고 기소하였다. 2001년 스코틀랜드사법당국은 기소된 협의자 2명중 1명에게는 무죄를 선포하고 다른 1명인 메그라히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최근년간 감옥생활을 하던 그는 암진단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스코틀랜드재판소는 메그라히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학적판단을 근거로 그의 석방을 결정하고 리비아로 돌려보냈다. 이 조치는 즉시 미국의 불만과 반발을 자아냈다. 미국은 피해자측의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려객기폭파사건협의자를 석방한 영국의 처사에 《강한 분노》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영국수상과 스코틀랜드지역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하였다. 한편 미국언론계는 영국이 리비아에 대한 자국내회사들의 천연자원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메그라히의 석방을 승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영국이 반기를 들었다. 영국은 미국의 내정간섭적인 처사를 비난하면서 메그라히에 대한 석방조치의 합법성을 주장해나섰다. 그때로부터 1년이 되여온다. 암으로 석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고 영국의 감옥에서 놓여나와 자기 나라에 온 메그라히는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움직이고있다. 그런가 하면 여론의 말밥에 올랐던 영국의 원유기업체들은 리비아에서 원유개발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미국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단락 잠잠해졌던 로커바이사건협의자석방문제가 또다시 미영간 충돌의 불씨로 되고있다.

더우기 미국의 감정을 크게 상하게 한것은 리비아에서의 원유개발에 참가하고있는 영국기업체들가운데 미국의 메히꼬만에서 특대형원유류출사고를 일으킨 브리티쉬 페트롤리엄(BP) 회사도 있는것이다.

BP회사는 현재 미국에서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영국의 원유업체이다. 지난 4월 BP회사가 미국에서 일으킨 원유류출사고로 하여 지금 메히꼬만일대의 넓은 해역이 원유에 오염되여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고있다. 이로 하여 온 미국땅이 아우성이다. 메히꼬만에서의 대규모의 원유류출은 미국력사상 최악의 환경재해로 간주되고있다. 심한 해양오염으로 이곳의 생태계가 파괴되고있는것은 물론이고 린근지역 경제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액만도 수천억US$에 이를것으로 추산되고있다. 미국은 사태수습을 위해 고심하고있다. 그런데 이 특대형재난을 몰아온 영국의 회사가 리비아에서 분주히 원유개발활동을 벌리고있으니 미국으로서는 눈꼴사납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미국에서는 메그라히의 석방이 인도적견지에서가 아니라 영국원유업체들의 막후공작으로 인한 일종의 《합의석방》이였다는 주장이 여론화되고있다. 미국의 각계에서는 영국을 다불러대는 목소리가 물끓듯 하고있다. 바빠난 영국정부는 미국주재 자국대사를 내세워 메그라히의 석방으로 로커바이사건의 미국희생자유가족들의 마음속상처를 건드린데 대해 깊은 사과를 표시한다고 하였다.

한편 영국은 BP회사가 메그라히의 석방에 압력을 가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완강히 부인해나서고있다.

형세를 보건대 미국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을것 같지 않다. 미국은 국회상원청문회까지 열면서 리비아에서의 영국원유업체들의 원유개발활동을 조사하겠다고 을러메고있다.

외신들은 원유가 있는 곳이라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고 덮고들어가는 미국이고 보면 자기의 리익을 손상당하면서까지 전통적인 동맹국이라고 해서 영국의 사정을 보아주지는 않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작용하는 자본주의세계에서 먹이감이 적어지면 서로 물고뜯기마련이다. 리비아의 천연자원리권문제를 둘러싼 미영사이의 마찰이 조만간에 막을 내리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들은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영희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는 남남협조강화노력

최근 나이제리아의 수도 아부쟈에서 발전도상8개국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1997년에 창설된 이 그루빠에는 방글라데슈, 에짚트, 인도네시아, 이란, 말레이시아, 나이제리아, 파키스탄 등이 망라되여있다. 올해에 들어와 7번째로 진행된 이 그루빠수뇌자회의에서는 성원국들사이의 투자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끝에 2010아부쟈선언이 발표되였다. 성원국들은 선언을 통하여 남남협조를 폭넓게 심화시키는것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세계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도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남남협조를 새 사회건설과 공동의 발전을 위한 사활적요구로, 공동의 과업으로 여기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지향과 시대적추세를 반영한것이다.

오늘의 현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남남협조를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발전도상나라들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경제적토대가 미약한 발전도상나라들은 새 사회건설에서 지난 시기 서방나라들로부터의 외자도입과 이 나라들에 대한 상품수출에 적지 않게 의거하였었다. 대외적의존도가 높으면 외부의 《이상기후》의 영향을 쉽게 받기마련이다. 결국 서방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생산이 줄어들자 그 영향은 전염병처럼 발전도상나라들에 미치였다. 이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장성률이 떨어지고 대외무역이 급격히 감소되였다. 경제위기는 점차 사회적혼란으로 번져졌다. 서방의 끝없는 탐욕과 금융투기행위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현실은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종전의 외세의존적인 낡은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적자립성을 보장하고 남남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있다. 최근년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지역들에서 지역적통합과 일체화를 다그치며 공동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쌍무적, 다무적협조가 강화되고있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이번 발전도상8개국수뇌자회의에서도 성원국들사이에 투자협조를 강화하여 경제적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수뇌자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세계화》와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는 문제, 대용 및 재생에네르기개발문제, 빈궁청산문제 등과 관련한 폭넓은 의견들이 교환되였다. 특히 성원국들사이의 무역특혜협정과 세관협조에 관한 합의문서명을 다그쳐 2012년까지의 무역목표를 달성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론의되였다.

현시기 남남협조를 실현할수 있는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최근시기 세계경제무대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면서 남남협조를 강화할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지향의 공통성으로 하여 남남협조실현에 다같이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또한 발전도상나라들은 방대한 인적자원과 무진장한 자연부원 그리고 새 사회건설에서 얻은 여러가지 좋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머지 않아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올라서거나 그보다 앞설수 있다.

올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0년 세계경제전망에 의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는 발전된 나라들에 비해 빨리 회복되고있다고 한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잠재력이 결코 약하지 않으며 이 나라들이 단합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서방독주의 불공정한 세계경제구조를 변화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실지로 지금 20개국그루빠와 같이 국제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경제정책작성과 실행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이 노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있다.

이번 발전도상8개국수뇌자회의에서도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유무상통하여 경제적자립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며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남남협조가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이란대통령은 발전도상8개국수뇌자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이번 회의가 불공정한 현국제경제질서에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불만을 표시하고 성원국들사이에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정책의 산물인 낡은 국제경제질서는 없어져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서방세력들의 경제적예속물, 략탈의 희생물이 되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이번 발전도상8개국수뇌자회의는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들의 투쟁을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ㄱ-01137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